

나의 근본 마음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다!

21면에서 계속

서 연명하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대강네 집을 찾아가니까 그 집에서 패물을 썼습니다. 그 패물을 가지고 가서 지금으로 치면 금세공 집에 가서 팔겠다 했겠죠. 그런데 마침 가보니 그 세공하는 아버지가 바로 언젠가 건져준 적이 있는 그 집이에요. 그러나 그런 얘길 해도 그 아들은 들은 듯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을 보니까 눈이 회반턱 거러졌죠. "내가 물어봐서 이거 살 사람을 구해서 팔아주겠소." 해놓고는 바로 원님한테 찾아가셨어요. 원님한테 찾아가서 고자질을 했죠. "이러이러 해서 이것이 나라에서나 나오는 건데, 모(繡) 도둑 잡힌 건지 모르니까 이것을 잘 처리해주시시오." 하면서 뭐 상금이나 받을 줄 알고 그랬죠. 그랬더니 원님이 너는 요다음에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상금을 내리겠다 하고선 보냈던 말씀입니다.

그러고선 그 스님은 불압이다 가워놓고 원님은 그 패물을 들고 한양엘 왔습니다. 임금한테 와서 이러한 얘기를 다 하니가 노발대발했습니다. "이것은 대궐이나 있던 패물인데 어째서 그 사람 손에 들어갔느냐. 필시에 이젠 도둑놈이 아니고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양으로 데려다가 감옥에 가렸죠. 이제 참참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스님인 줄 모릅니다. 머리로 기른데다 물결이 말이 아니거든요. 형편이 어려워 살 수가 없어서, 상놈인데 살 수가 없어서 그냥 돌아다니는 줄 알겠죠. 그대 이제 들어가서 있으려나? 아, 밥을 주는 데 입맛이 없어서 영 먹을 수가 없는데 거기 사람들이 죄 굶어죽을 생각을 하니 기가 막히단 말입니다. 입맛도 없고 들어가지도 않아서 목이 메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으니까 "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을 날이 이제 가까와 올 텐데 밥이나 배불리 먹어줘!" 하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귀가 번쩍 났 겁니다. "어떡하면 여기서 벗어나지?" 하고선 생각을 하면 좀 뻘 생각이 났습니다. "야, 뱀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즉시 달려왔습니다. 즉시 달려와서는 "부르셨습니까?" "내가 이만저만하여 짝꿍이 도둑놈으로 몰려서 죽게 됐어. 참한다구 한다. 그러나 어떡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뱀은 뱀으로 살던 습성이 있어, 독이 있고, 그 습이 있어서 능수능란하다 이겁니다. 그러나 걱정 마시고 나는 보이지도 않으니까 들어가서 대비마마를 꼭 물어뜯어서 독이 올라서 정신상태가 흐려지고 살이 전부 시퍼렇게 되는데 놓겠습니다. 그리고 대비마마 눈에만 내가 뱀으로 보일 거고 방방곡곡에서 고쳐려고 해도 아무도 못 고칠 겁니다. 그때 당시에 들어가서 이마에다가 손만 얹는다면 그 독이 전부 다 빠질 테니 그 후에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러고는 뱀은 손살같이 대비전으로 들어갔어

요. 대비 눈에만 보였지 판 사람 눈에는 안 보이죠. 그래서 열른 물고선 달아나갔죠. 달아나가나 마나죠. 알고 본다면 달아나갈 것도 없고 들 어갈 것도 없는, 그 모습 없는 모습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면 그게 누군가? 바로 그 스님이란 말입니다. 둘이 아니기에, 급한 거를 면할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잘 음미해 보시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기가 그렇게 편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옥 안에 들어있으니까 온통 날리가 났습니다. 그냥 여기서 쭉쭉쭉 저기서 쭉쭉쭉 야단났고, 은 방방 곡곡의 의사가 들어왔다 나갔다 해도 뭐, 까딱없거든요. 그래서 울고불고, 참하고 말고 그거는 뒷전이고, 하여튼 야단이 났어요. 그때쯤 임금한테 고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고쳐볼 수는 없겠는지요?" 하고 청하니깐 "그러면 들어와 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재판도 해보지 않고 남의 소리만 듣고 감옥에 가렸는데 그



그림 · 최주현

한다면 우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국방에 참, 나라에 대책을 세우는 데도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냐? 우리는 이 물질적인, 어떠한 수효의 사람들만 제워놓는 게 보통 경우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람보다도 사람 아닌 사람이 더 많은 얘깁니다. 그럼으로써 굳은 한 명에다가 굳은 마음의 그 마음 근본을 넣어준다면, 즉 말하자면 잠재해 있던 의식 자체를, 유명한 사람들을 다 넣어준다면 열 배나 위력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도 '마음을 휘어잡지 않고는 싸움을 할 수가 없고, 마음을 휘어잡아서 이겨야지, 마음을 휘어잡지 않고 마음을 조잡하지 못한 채 그 마음을 회전하지 못하고, 계발한다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하다가 잘못 건드려 놓으면 오히려 화를 입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물로 보지 않고 언제나 선의적으로 우리가 제발을 한다면, 그것도 틀이 아니기 때문에 모습을 약하게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선의적으로서 잘 나와서 자기의 길을 인도합니다. 자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로 보고 상대적으로 보고 우리가 그 도리를 모르고서 그쪽의 능력도 모르고서 투쟁을 열었다가는 패배를 당합니다.

그런데 뭐냐? 나만 죽는 게 아닙니다. 전체가 다 이런 깨지는 겁니다. 한 모퉁이가 깨질 수도 있고, 물로 그냥 팽! 칠 수도 있고, 불로 다 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마치 '맛을 봐야 맛을 알지.' 하는 식입니다. 몇 수억 천년을 살아온, 모습 없는 모습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다니는 건 아닙니다. 마음에서 그렇게 이끌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다음 호에 계속)

니까? 인간으로서 고등 동물로서, 그리고 또 시대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얼마나 계발이 됐습니까? 전자엔 먹을 게 없어서 쪼들쪼들하고 인종이 그렇게 드문드문 있는데 지금은 보세요. 얼마나 많고, 또 전자에 내 모습으로 살았던 짐승들을 보라고요. 짐승들이 사람이 되고 기어다니다가 서서 다니고 이런 거지, 꼭 처음부터 이렇게 서서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만큼 진화되고 이렇게 발전이 된 것도 그 중세기에 우리는, 이런 중점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불국토를 이룬다 할 때는, 회전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을 때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한 생각을 해서 회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대인이 됐을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불국토다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이 앞으로는 점점 어려운 문제,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뭘까? 남이 힘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고 남을 때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화를 입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무(無)의 세계의 어떠한 문제를 연구한다고 그리고, 계발한다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하다가 잘못 건드려 놓으면 오히려 화를 입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물로 보지 않고 언제나 선의적으로 우리가 제발을 한다면, 그것도 틀이 아니기 때문에 모습을 약하게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선의적으로서 잘 나와서 자기의 길을 인도합니다. 자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로 보고 상대적으로 보고 우리가 그 도리를 모르고서 그쪽의 능력도 모르고서 투쟁을 열었다가는 패배를 당합니다.

그건 뭐냐? 나만 죽는 게 아닙니다. 전체가 다 이런 깨지는 겁니다. 한 모퉁이가 깨질 수도 있고, 물로 그냥 팽! 칠 수도 있고, 불로 다 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마치 '맛을 봐야 맛을 알지.' 하는 식입니다. 몇 수억 천년을 살아온, 모습 없는 모습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다니는 건 아닙니다. 마음에서 그렇게 이끌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다음 호에 계속)

그런데 연구한다고 거기까지 파헤쳤을 때는, 다는 파헤치지 못하고 한 부분만 파헤쳤을 때는 그때는 참 위험한 결과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부를 해서 만약에 과학자들이 위험 지경에까지 도달했을 때는, 딱 이렇게 안에서 잘 길을 인도해줄 수 있는, 스스로의 마음에서 그렇게 이끌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87년 2월 15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르면 경쟁이고 넘어서면 제발입니다!

러면 목욕을 시켜가지고 데리고 들어오너라." 그래서 목욕을 시키고 그 방엘 들어보내줬죠. 들어가서 손을 대비마마의 이마에 짚으니까 아, 얼마 안 있어서 깨어나거든요. 깨어나면서 그 시퍼렇게 차차차차 위셔부터 아래로 다 시야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임금이 깜짝 놀란 겁니다. 전국에서 한 다 하는 의사가 다 들어와서 봐도 영 가망도 없더니 이렇게 나를 쫓아. 참, 미처 몰랐다고 하면서 보물 얻은 그 사유를 다 물어봤습니다. 그래서야. 그래서 그 사유를 꼭 얘기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금세공 아버지가 멧에 걸려서 있는 거를 살펴 주었다는 얘기도 했지만 그거는 아랑곳없고, 그걸 모르니까. 그랬는데 스님이란 소리는 안 하고 그 대강님이 그렇게 주셨다 하니가, 그쪽으로 연

락을 취해봤겠죠? 보니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도둑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자질한 그 금세공하는 사람을 붙들었다가 옥에 가두라고 하고, 그 스님을 임금이 아주 믿고, 국가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서로 상의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돼버렸죠. 너무 믿으니까. 그러자 이분은 그대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국방도 튼튼해야 하고 국가의 재정도 그렇고 모든 문제, 지금이나 그때나 뭐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가 그래도 임금은 다 듣고 그대로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것이 보이는 물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빨리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아가 뱀 얘기 했죠? 그 얘기처럼, 잘 생각해보 할 수 있는 모체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먹어보고 맛을 알지 못하는 이상, 내가 말로 해서 정확 나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생각이 그렇게 귀중하다. 한 생각이 일체 만법을 다 다리고 낼 수 있는 회전의 근본 원력이 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 최초의 나 자신의 태초를 모르니 어찌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여러분이 최초로 생길 때에, 사람으로 그냥 생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 있는가? 내 뱃속에 내 태초의 모습이 있어요. 보세요. 없냐? 그걸 역력히 보세요. 우리는 그것이 모여서 인간 한 덩어리가 된 겁니다. 그게 커져서 자꾸 진화되고, 그것이 자꾸자꾸 늘어서 우리는 지금 얼마나 커졌

대자암 무문관 후원회원 모집공고

본 대자암은 제1무문관에 12명 스님과 부여 은산면 매화초등학교 폐교 제2무문관에 13명 스님이 2005년 음력 10월 15일에 제2차 3년 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도인 출현을 염원하는 신도님 제위께서는 아래에 의하여 후원회원에 동참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 후원회비 : 월 1만원
- ◆ 우체국 310623-02-033475 국민은행 454-21-0349-683 예금주 : 문판오(정영성님)

계룡산 대자암 제1무문관
충남 부여군 은산면 가곡리 전화 041)833-4963

계룡산 대자암 제2무문관
충남 부여군 은산면 가곡리 전화041)833-4963

수제화로 제작 滿行靴

상표등록 : 614981호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 사계절 단화

■ 방한용 털신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서울 중로구 공평동 143번지 (두산위브 맞은편으로 이전)

전국매장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불교의식(범음)수련생 집

• 수련사에서는 실습을 통하여 불교의식을 여법히 집전할 수 있도록 3개월 속성으로 집중지도합니다.

• 포교원 및 법사로서 활동하실 분들의 교리와 의식을 익혀 자질을 갖춘 법사가 될 것입니다.

교육과정

- ◆ 기초과정 : 도량식, 종성, 조석예불, 각단예불, 삼보통칭, 중단퇴공, 각단불공.
- ◆ 시식과정 : 49재 및 천도재 의식,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 ◆ 교육방법 : 매주 화 · 목요일 오후 3~5시, 5~7시
- ◆ 접수일시 : 수시접수
- ◆ 개강일 : 2007년 3월 6일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수련사 불교대학 범패 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190-30
☎ 02)764-6060 / 011-9769-8868

권정해년 목화암 행사 안내

황금돼지의 해 대운맞이 100일 기도 입제

- ◆ 사업이 잘 안되어 고민하는 분 사업성취 비법
- ◆ 부동산 매매가 잘 안되면? 급성 매매 비법
- ◆ 공직시험이나 일반시험을 앞둔 수험생 성공비법
- ◆ 집안에 산소탈모 조상이 누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
- ◆ 우환으로 가정이 불편하거나 일이 잘 안될리는 분
- ◆ 자녀들의 혼사 문제로 고민하는 분
- ◆ 직장 승진이나 장래 출세를 원하는 분
- ◆ 청소년 진로 문제나 송사 문제로 고민하는 분
- ◆ 부부간에 금슬이 안좋아 갈등이 심한 분
- ◆ 정해년 삼재 소멸기도, 뱀똥 닭피 소피

기타 사주, 궁합, 택일, 작명, 성혼, 화합 등 저희 법당을 찾아오시는 분에게는 황금돼지와 몇가지 선물을 증정합니다

권 목 화 암

02)477-4688/010-7324-5116
주소 : 서울시 강동구 천호1동 236-3번지 청방마트 뒤